

“마음 잘 쓰면 곧 성불해”

은 같은 불인이 아닌가? 앞의 불꽃은 사라지고 뒤의 불꽃이 타고 있으니 똑같은 것이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중생의 분별심에 의해서 살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보아내지 못한다.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걸을 때는 걸기만 하고 볼 때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망상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익힌 습 때문에 분별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에 수행이 필요하다. 일오 스님은 순간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챙기는 사띠(Sati, 알아차림)수행을 강조하였다. 율광로에서 금을 뽑아내듯 혹독하게 집중적으로 수행하면 도를 이룰 수 있었다.

일오 스님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려주셨다. 부처님 당시 ‘바이아’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다 조난을 당하여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바이아는 그 마을에 자리를 잡고 결식을 하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라고 생각하였지만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바이아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았다. 굶기야는 바이아를 두고 아라한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진짜 아라한과를 얻은 어느 수행자가 그를 만나려왔다. 수행자는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 행세를 하고 있는 바이아를 꾸짖었고, 그제서야 바이아는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바이아는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신심이 솟아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삼일주야(晝夜)를 걸어서 도착하였다. 아침에 대중들과 함께 결식 나가시는 부처님을 만나 법교 간절히 가르침을 구했다.

“바이아, 네가 사물을 볼 때는 보는 것에 집중하라. 소리를 들을 때 들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그것에만 집중하라. 단지 그것이 마음의 대상임을 알아서 분별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이아는 그 자리에

서 깨쳐 아라한과를 얻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수행을 하였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에 따라서 깨달음은 잘나이다.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백 마디 계승을 듣는 것보다 한마디 계승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볼 때는 볼뿐이요, 들을 때는 들을뿐이요’ 이것이 사띠 수행법”이라면서 <육조단경>의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그 마음만 잘 쓰면 곧 성불한다(菩提自性 本來清淨 但用此心 直了成佛)의 구절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분별심이 붙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뒤를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화두 참선 외에도 방편으로 염불·주력·기도 등 여러 가지 수행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에 맞는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집착을 여의게 되겠지요. 마음이란 것도 연기에 의한 것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도 불꽃과 강물처럼 흐름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순간순간 이루어진 것이고, 흐름의 과정으로 한 순간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선방에서 화두참선을 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화두를 잘 참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순수한 의심이라야 올바른 화두참구를 할 수 있어요. 화두에 큰 의심을 일으켜 나아갈 때는 알음알이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언설이 끊어져야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뭣고’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참구할 때는 알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깨달으려는 마음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따로 찾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버림입니다. 과거·현재·미래·사비·선악 일체를 화두 하나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화두 하나에 몰입되어 모든 상념이 끊어져 없어지고 허공처럼 텅 비어 깨끗하고 고요하면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일체를 아는 지혜가 열리는데, 이것을 무심(無心) 혹은 본래청정심(本來清淨心)이라 합니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쓰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일오 스님은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올바르게 수행하여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경계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법답게 바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수행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수행했으면 한 달 수행한 만큼, 일 년 수행했으면 일 년 수행한 만큼 달라져야 합니다.”

태안사에 어둠이 내리고 어디선가 술가지 타는 향이 코끝에 와 닿는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화두를 품고 있다는 정심교·반야교·해탈교·능파각을 뒤로 하고, 피안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차인의 세계로 걸어 나왔다.

글·사진=문은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일오 스님은 1965년 백운산으로 입산. 월인 스님을 만나 출가. 40년 넘게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 전남 부산 월명암 선원장 역임. 지금은 곡성 태안 사선원장을 맡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7> 뇌허 김동화 박사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불교,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불교,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불교”를 가지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실천하신 분이다.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불교를 철학, 과학, 문학이란 제목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은데, 박사님께서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사회 대중으로 하여금 동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2의 석가牟尼”로 칭찬하기도 하였다. 실로 박사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적인 면에서 응용하여 일생을 후배양성에 헌신하셨다.

박사님은 190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1세에 동해사에 출가, 법장사에서 계를 받고, 상주 보통학교, 남명중학, 금릉사 지방학림을 거쳐 26세

에 일본 릿쇼(立正)대학 종교학과에 유학하였다. 졸업 후에는 본교에서 전임강사를 하다가 대구·경북불교협회의 초청으로 귀국, 오산불교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고 41년 해방전문화교에 들어와 학생과장, 교무주임, 교수, 학장, 대학원장을 2·3회씩 연임하면서 평생 불교학자로서 생을 마쳤다.

동국여경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연구소에서 불교소장을 맡으면서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강사로 나가 강의하는 것으로써 포교사 임무에 충실하기도 했다.

필자가 처음 박사님을 뵈었던 것은 동아일보에서였으나, 뒤에 번들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다달이 한 두 번씩 찾아볼 기회를 가졌다. 혼자 계시면서도 아침 저녁 예불을 거의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특히 만년에는 선상매(禪

三昧)에 드실 때가 많았다.

예불문은 “참회계·개경계·반야심경·화엄경·아미타공경찬품·법화경·방편품·보문품·십대원·연명심구·십계·자성정정원대타이악회향문·사홍서원”을 주로 하였으며, 예불 후에는 반드시 입정(入定)하였다. 입정하실 때는 언제나 불을 끄고 캄캄한 방에 앉아서 하셨는데, 부처님 머리 뒤에 두광이 나타나듯 둥근 광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보고 놀래면, “놀랄 것 없어. 누구나 구름이 같



“산중 사찰 관광지 전략될까 염려”

자연한 이치야” 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너무 오래 앉아 글을 쓰시고, 풀과 설탕을 많이 드셔서 당뇨가 생긴 뒤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셨으므로 걸음은 항상 땅이 꺼질세라 조심조심 걷고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 눈에 소 걸음)라 하였다.

법문을 청하면 언제나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서론·본론·결론이 분명하였다. 실사 어색한 장소에서 법을 청하면 본래 생각했던 것과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으므로 무당 관수도 정법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 특히 신행을 통하여 가정이 화

합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 극구 칭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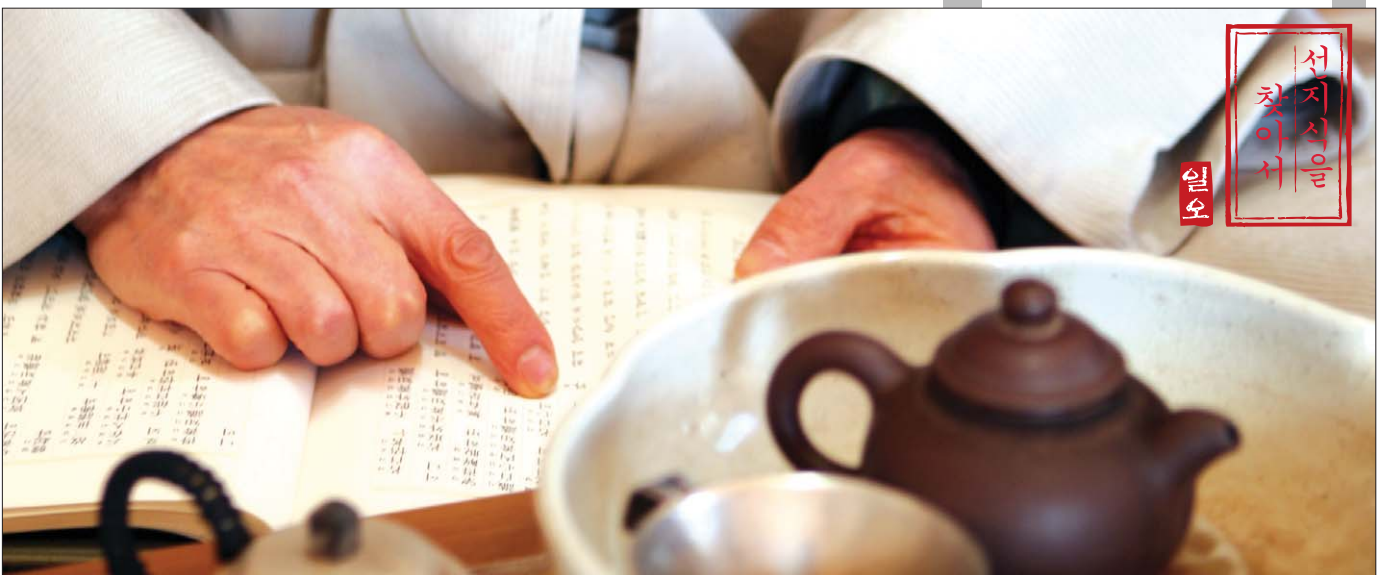
박사님의 이 같은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제자 광우 스님이 삼선교에 정각사를 짓고 20여년간 법회를 이끌어 왔으며, 동료 황성기 교수님은 종로5가 통일예식장을 빌려 매주 토요일법회를 열었다. 또 서울대, 연대, 고대의 강의를 원외법 박사님께서 계승하였고, 동국대에서는 분야별로 각기 그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특히 오형근 박사님께서 유식학에 일가견을 이루었다.

불교통신대학교는 1976년에 인연을 맺었으나, 우남이 시골 벽촌에서 농사지으며 포교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국대 학장·대학원장을 두 번 씩이나 지내고, 학술원 종신회원이 되신 분이 어떻게 이 시골 학교, 보잘 것 없는 학원을 맡아 주신단 말인가.

우리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도봉동 자택에서 마지막 공양을 읊었다.

“산중불교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고, 잡념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사원이 관광지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귀한 수행지가 문화관광으로 전략될 염려가 있다. 6비라밀을 생활의 지표로 삼고 계·정·혜 3학을 잘 닦으라. 그리하면 불교정도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내가 자네를 사랑한 것은 학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생활불교에 충실하여 일선포교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 또한 일생동안 불교활동을 하여 학술원 일까지 보아왔지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보람이지 나의 욕망이 아니다. 포교하다가 돈과 명예, 사랑에 빠지면 부처님까지 욕먹이게 되는 것이니 후배들을 기를 때, 이 점 꼭 명심하기 바라네.”

이것이 마지막 법문이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